



<12월호>

월간 서신원

제 12호(vol. 1-12)

발행인: 권호덕총장
편집인: 장석조교수
발행소: 서울성경
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칼럼>

성탄절(聖誕節)의 내리막길



권호덕 총장

우리는 어린 시절 12월이 되면 성탄절 행사 연습을 위해 매일 교회를 드나들던 기억을 지니고 있다. 또 12월 25일 새벽 1시경에 뜨거운 떡국 한 그릇을 먹고 이 동네 저 동네를 조별로 나누어 다니며 크리스마스 송을 부른 추억이 있다. 성탄절 저녁엔 특별 프로그램으로 불신자들에게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순서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하는 성극(聖劇)들은 물론 그 주제에 따른 어린이 무용, 독창과 합창, 이중창 등 성탄의 노래를 많이 불렀다. 아직 텔레비전이 없던 시기라 마을의 주민 상당한 부분이 교회에 구경삼아 왔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때라 남포등을 밝히고 모든 순서를 진행시켰는데, 불신자들에게도 이 행사는 의미 있게 여겨진 것 같았다.

그런데 20세기 삼사분기부터는 성탄 문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12월 초가 되면 징글벨 소리가 울려 퍼지던 것이 사라지고 대부분 교회들의 행사도 대폭 축소되는 듯 했다. 19세기 말엽에 구세군을 창설한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앞으로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가 올 것이라고 예견한 일이 있다. 아마 20세기를 부스의 예언이 적중하는 시기로 봐야 할 것이다. 언젠가부터 성탄절은 백화점에 먼저 왔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산타클로스가 되어 버렸다.

성탄절에 대한 비관적인 일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올해는 성탄절과 관련하여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난 것이다. 얼마 전에 매스컴은 미국 상가들이 테러의 위협으로 인해 성탄절이라는 병칭 대신에 '거룩한 휴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말하자면 이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경향을 보인 것이다. 말하자면 성탄의 별이 지고 있는 듯하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형편일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한국교회는 더러는 오해로 인해 더러는 납득이 갈 수 있는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던 성탄절은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기독교는 이제 그 탁월함을 보여주지도 못한 채,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질 뿐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구차한 변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교회는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그 본래의 모습을 찾는 일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교회는 너무나 물량적인 확대를 추구했고 물질적인 부요를 추구했으며, 하나님을 관심의 대상으로 섬기는 일을 간과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바벨탑을 쌓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해결 열쇠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선포된 설교를 자주 들었다. 그럼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까?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구절에서 눈여겨 볼 단어가 바로 '육신'이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롬 8:3) 표현하여 고난을 당하는 몸으로 오셨음을 지적한다.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빌 2:7)로 오셨음을 지적하며 그 분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음을 가르친다.



현실은 인간이 한 없이 높아지려 하다가, 심지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지옥으로 곤두박질 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타락한 인간 세상은 이런 지옥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여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겸비하게 오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자기 출세를 도모한 일이나, 마술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이용한 일을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세계의 성탄절 추리>



애기봉 성탄 추리



독일 뉘른베르크 프라운 교회 앞 바자회 시장



산업화 시기까지 한국교회 성탄절



미국 백악관 성탄 추리



독일 쾰른 성당 앞 성탄절 바자회 시장



1967년 성탄절 전경



다른 불로 하지 말라

임창일 교수(구약학, Ph.D.)

1. 개요

본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기록한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계속하라고 당부한다. 한편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실수를 덮어준다.

2. 나답과 아비후의 죄(1-2절)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다. 아론과 함께 시나산에 올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시나산 계약에 참가했었다(출 24:1). 그러나 그들은 제사 직무를 수행하다가 대가 끊기고 말았다(민 3:4).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후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 그들의 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분향한 것이다. 성도는 셋길이 아닌 정도(正道)를 걸어야 하고, 넓고 편한 길보다 좁고 험한 길을 걸어야 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3-14).

3. 나답과 아비후의 또 다른 잘못은 무엇인가?

분향의 원칙은 언제든지 한 번에 한명의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분향하려 들어갔다. 또한 분향은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 엎드려 있을 때에 진지하고 엄숙하게 드려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경솔하게 조급함으로 분향했다. 아마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다(참조, 레 16:1-2). 이 사건 직후에 포도주나 독주를 금한 것을 보면(레 10:8-9), 그들은 술을 마시고 들어간 것 같다. 또 그들은 규정된 제사시간이 아닌 비정상적 시간에 제사를 드린 것 같다(출 30:7-8).

4.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죽음으로 엄벌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웃시아는 나병이 들었고(대하 26:19,21), 사가라는 병어리가 되었는데(눅 1:20),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했다. 죄의 작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롬 6:23).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던 그 불로 죽임을 당했다. 그들은 대가 끊기는 형벌을 받았다(민 3:4; 대상 24:2). 그들이 형벌을 받은 까닭은 율법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데, 그들이 분향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신 28:1-6),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신다(신 28:15-10). 죽음의 형벌은 하나님의 일꾼(사역자)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5. 제사에 관한 율법을 주신 직후에 범죄사건이 생긴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의 약점을 보여준다. 즉 율법이 죄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짚어지려고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마 5:17-18; 8:17). 누구든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 값으로만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히 9:11-12).

6. 대제사장 아론이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취한 태도는 무엇인가?(3절)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잠잠했다. 아론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슬픔 속에서도 아론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시 39:9). 아론이 슬픔 가운데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집안에 시련이 닥쳐와도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가르쳐준다.

7. 죽음 앞에서 아론의 직계가족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경고한 까닭은 무엇인가?(6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인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혈통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제든지 가족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이다(눅 14:26).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교훈이다.



8. 대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집무 중에 금지한 법은 무엇인가?(9-11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다. 복음의 사역

자들도 술을 즐기지 말라고 했다(딤후 3:3).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9절). 사역자들은 몸과 마음이 항상 맑아야 한다. 제사 중에 금주명령을 내린 까닭은 제사란 하나님과 영적교제를 나누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사장은 집무 중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백성을 가르쳐야 했다(10-11절).

9.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실수를 덮어준 까닭은 무엇인가?(12-20절)

모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실수를 책망했다.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실수는 그들의 분깃인 제육(祭肉)을 먹지 않은 것이다(16-18절). 제사장들이 법대로 제물을 먹는 것도 제사의 순서이다. 제사장들이 속죄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제육은 먹지 않고 불태웠다(레 4:21; 6:30). 그러나 성막 뜰에서 제물의 피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그 제육을 먹어야 한다(레 6:26). 그 제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한다. 신약의 성도들도 영적으로 그 제육을 먹어야 한다(요 6:35). 이상한 점은 아론이 그 일에 대하여 변명하는데(19절), 모세가 그 말을 옳게 여겼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의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암시한다.

<신앙시인의 수필>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경아 박사(신원예닮교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제 자리를 벗어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밥이나 국물 속에 뜨는 하얀 외투나 소파에 있는 머리카락, 거리나 가로등 아래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 역사(驛舍)에 나뒹구는 때 지난 기차표나 빈 음료수 병, 정도를 벗어나 커닝하는 학생의 눈길, 집에 있어야 할 시간에 다른 곳에서 머뭇거리는 엄마나 아빠의 발, 그리고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자기 영욕과 쾌락을 쫓거나 드러내려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

그렇습니다. 머리카락은 머리에서 결을 이루고 있을 때 더럽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그 중에 맞는 쓰레기봉투나 통에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눈길도 엄마 아빠의 발길도 모두 주어진 직분에 합당하게 움직이고 존재해야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잣대 삼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처음 네 가지

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중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은 말과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자의 정상적인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 삼아, 생각 없이, 가볍게, 값싸게 부릅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오 마이 갓’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저급한 상황에서 고급한,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로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통하여, 내 생각과 손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꼭 붙어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거예요. 다 가지세요.” 하면서 나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때 우리 믿음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경건한 삶이 회복됩니다. 이웃을 향한 관심이 회복됩니다. 사랑의 눈이 열립니다. 소외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처 받은 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 때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거나 멸시하는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하는 그때.

이 글은 『내가 밤보다 새벽을 더 사랑함은』(이경아, 1991), pp. 66~71의 내용(<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을 압축·정리한 글입니다.



<사도행전 강해>(8)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하나님의 나라

장석조교수(신약학, Ph.D.)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는 것이 아닐까! 두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며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을 가르친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첫 두 단락을 시작한다(마1:1, 18). 첫 단락(마1:1-17)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다윗이 5회 반복되고 다윗으로 시작하고 마친다.

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3회 반복되는 14(4+6+4)대는 1세기 ‘게마트리아’ 해석방식에 따라 ‘다윗’(d+w+d)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짐으로 취소되지 않았고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듯이 성취되기 시작함을 가리킨다(삼하 7:13; 사 9:7; 창 12:3).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적 그리스도이시다는 기독교론적 복음을 가르친다. 둘째 단락(마1:18-25)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담의 죄를 전가 받지 않으신 무죄한 의인이다.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은(행 3:14) 그의 백성을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속죄의 그리스도이다(1:21; 26:28; 사 7:14).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지 않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고(눅1:5-25; 눅1:26-38)를 병행구조로 비교하고, 이어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눅1:57-80; 눅2:1-52)도 병행구조로 비교한다. 누가도 마태와 같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적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친다(눅1:26-38). 특별한 것은 다윗 언약을 가리키는 사무엘하 7장을 명시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이 명시적 인용은 누가가 강조하는 약속의 성취(눅 1:1)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

원히 다스릴 왕적 그리스도이시다(눅 1:32). 누가는 명시적 구약 인용을 통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행1:3, 6; 삼하 7장; 사 40, 52, 61장)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으로 부각시킨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고 완성될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나라’ 단어는 누가복음의 본론을 시작하는 갈릴리 초기사역 단락에서 두 번째 명시적으로 반복된다(눅 4:43).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1:32-23).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고(눅1:5-25; 눅1:26-38)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모두 “큰 자”로 표현된다. 이것은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출14:31; 18:11)과 모세(출11:3)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출애굽 모형의 종말론적 성취를 나타낸다(눅7:33~34). 칼빈이 지적하듯이, 세례 요한의 “큰 자”됨은 수식어구 “주 앞에”에 의해 제한되고(눅1:15),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큰 자”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평가대로 예수님이 구약 최고의 선지자 요한보다 절대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각시킨다. 보다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비교는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것(1:15, 41)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1:35)에 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마리아의 긍정적 반응으로 연결한다(눅1:39-56). 마리아는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엘리사벳과 믿음의 교제를 나눈 후 주를 찬양한다. 이것은 요한의 탄생 예고에 대한 사가랴의 부정적 반응과 대조된다(눅1:19-22).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제사장 사가랴의 믿지 않음 반응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의 임신으로 돌보신다(1:24-25). 왜냐하면 두 위대한 인물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절대주권자의 대표적 일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부터 구원 계획을 계시하고 준비하는 큰 일을 행하신다.



특히 노인 엘리사벳이 젊은 마리아를 부를 때,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주” 기독교론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태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로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나타낸다(눅 1:43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누가가 철저하게 중심 주제로 제시하는 “주” 기독교론은 사도행전의 문맥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마치며(행 1:3,6; 28:23, 31) 그 주제를 명시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체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핵심이 있다.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로서 주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준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본질적으로 시작한다. “주” 기독교론은 예수님의 절대적 우월성을 확정하는 표현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기독교적 복음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눅1:57-80; 눅2:1-52) 병행 구절에서도 핵심내용으로 제시된다(2:11, 26).

성탄절이 다가온다. 두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복음의 첫 단계로 제시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시작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하여 탄생하셨다. 어느덧 한국교회도 냉랭하고 권위를 상실한 영국교회를 급속히 닮아가고 있다. 오직 성경적 설교로 부흥을 일으킨 로이드존스 목사는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감성과 불굴의 개혁의지로 교회 안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설교하는데 성공적인 효과를 이뤄냈다. 성경적 설교는 개혁신학으로 부흥하는 대안이다.

학교소식

1. 다음 학기부터 본교에 ‘기독교사회복지학과’(MA)가 개설됩니다. 이를 위해 담당 교수를 선발하고 학생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12월 10일 특별전형이 있었습니다. 특별장학생을 선발하고 일반장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성경, 영어, 논술)과 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15명이 합격했습니다.

3. ‘한국대학원대학교협의회’가 구성되고 사단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로써 대학학원대학교가 당면한 문제들을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교는 이사 대학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학원대학교에 이런 협의체가 없어서 교육당국으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제 문제 해결의 수단이 마련된 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43개의 대학원대학교가 있고 그 중에 27개가 신학대학원대학교입니다.

4. 본교의 건물이 세워진지 오래되어, 수리보수가 시급합니다. 구청으로부터 건물구조에 문제가 지적되어 한층 더 올리는 일은 일단 보류되고 우선 고장 난 화장실 수리가 진행되

고 있습니다.

5. 본교의 부설기관인 ‘한국어교육원’은 서서히 정착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받고 또 한국어를 잘 배워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도가 요망됩니다.

6. 본교 평생교육원의 ‘평신도조직신학교사반’이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본교단 출신 학생들과 타교단 출신 몇 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기를 마치면서 이 학생들이 본교 발전기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엔 직장일로 바쁜 사람들은 참석하지 못했음

7. ‘월간서신원’ 이번호부터 신학이념이 같은 교단들과 교류를 위해 재건축 최흥식 교수(햇불신학대학원대학교)의 글과 고려개혁측 목사(양의문교회 김진범)의 글이 게재됩니다.

8. 학교발전을 위해 교단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이 매우 요망되는 시기입니다. 아직 본교가 자립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후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후원계좌번호: 국민은행 040001-04-167081

예금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하나님은 누구신가?(10)

삼위일체론 강의(3)

이동영 교수(Dr. theol. 조직신학)

아퀴나스 이래로의 신론 구성의 전통에 대한

반성적 성찰

서방교회의 신학적 전통에서 삼위일체교리는 기독교 신론 그 자체로 취급되지 못하고 신론의 부록으로 취급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von Aquin) 이래로 서방신학은 신론에서 “한 분 하나님에 관하여”(De Deo uno)라는 제하에, 첫 번째 항목으로 그분의 ‘본질’(Wesen)을 취급하고, 두 번째 항목으로 그분의 ‘속성’(Eigenschaft)을 취급한 후, 그것의 세 번째 항목에서 삼위일체교리, 즉 “삼위 하나님에 관하여”(De Deo trino)를 취급하였습니다. 개신교정통주의신학(Protestantische orthodoxe Theologie) 또한 신론의 서술에 있어서 이러한 입장을 따랐습니다. 신론 서술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은 결국 서방신학의 역사 안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삼위일체교리 위에 전제군주적 일신론(monarchischer Monotheismus)의 암영을 드리우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습니다.

슐라이에르마허의 『신앙론』과 바르트의 『교회교의학』에서 삼위일체론의 서술 및 배열방식의 문제점

계몽주의 이래로 삼위일체교리는 기독교인의 예배(경건)와 삶(실천)을 지배하는 기독교의 근본교리로 이해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의 예배와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의미한 사변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신학적 분위기를 대변했던 대표적인 신학자가 바로 프리드리히 다니엘 에른스트 쉘라이에르마허(F. D. E. Schleiermacher)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의학 저서인 『신앙론』(Glaubenslehre)의 말미에서 삼위일체론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의미한 사변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삼위일체교리가 교의학의 맨 마지막 말미에서 취급될 경우 삼위일체교리는 모든 교리들 중 가장 가치 없는 교리, 즉 교의학의 말미를 장식하는 부록으로 간주되는 오류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야말로 쉘라이에르마허적 전개방식이 노출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의학의 말미에서 삼위일체론을 개진한 쉘라이에르마허에 대항하여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자신의 교의학 저서인 『교회교의학』(Kirchliche Dogmatik)의 전반부인 『교회교의학』 I, 1의 ‘계시론’을 취급하는 항목에서 삼위일체교리를 다룹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르트는 삼위일체교리를 교의학 전체의 기초 신학

적 토대로 삼는 듯이 보입니다. 바르트와 같이 삼위일체교리를 교의학의 전반부에서 취급할 경우 삼위일체교리를 교의학의 전체 구도의 ‘전제’(Voraussetzung)로서 강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프리트 예스트(W. Joest)가 정당하게 비판한 것처럼 바르트는 이런 진술 방식을 통해서 실재적으로는 다른 교리들로부터 삼위일체교리를 고립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삼위일체교리를 기독교론과 성령론의 전제적 선취(Voraussetzende Vorwegnahme)로 축소시키는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론을 교의학 전반부에서 다루는 바르트에게서 발견되는 신학적 결함입니다.

삼위일체론적 교의학 구성에 대한 헤르만 바빙크의 위대한 통찰

삼위일체론을 교의학의 말미에 취급하는 쉘라이에르마허에 대항하여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는 자신의 저서 『개혁교의학』제 II권(Gereformeerde Dogmatiek, II)의 신론에서 삼위일체교리를 취급하는 가운데 삼위일체론에 기초한 교의학 구성의 가능성에 대하여 실로 예리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바빙크는 자신의 『개혁교의학』에서 그 자신이 찬동한 교의학의 삼위일체론적 구성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론적 교의학 구성에 대한 바빙크의 통찰은 자신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교의학의 삼위일체론적 구성에 대한 위대한 예언자적 해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프리트 예스트의 새로운 시도

독일의 신학자 빌프리트 예스트(W. Joest)는 자신의 교의학 구성을 쉘라이에르마허나 바르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합니다. 예스트는 자신의 『교의학』제 1권(Dogmatik, I)에서 신론, 기독교론, 성령론을 차례대로 취급한 후, 그것의 종합으로서 삼위일체교리를 논구합니다. 그리고 난 후 『교의학』제 2권에서 교의의 각론, 즉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취급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교의학의 말미에서 삼위일체교리를 취급하는 쉘라이에르마허의 방식이나 교의학의 전반부에 삼위일체교리를 취급하는 바르트의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삼위일체론을 교의학 전체의 구성적 원리로 운용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진일보한 방식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성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교리를 다른 교리들로부터 고립시켜서 교의학 말미에 부록으로 취급하는 쉘라이에르마허적 오류뿐만 아니라 삼위일체교리를 기독교론과 성령론의 전제적 선취로서 축소시키는 바르트적 결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론적 교의학 구성을 위한 하나의 제언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가 일체인 하나님(Der dreieinige Gott)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학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에 충실한 신학이 되고자 한다면, 공교회의 스승들이고 대 교부들의 강조를 따라서 신학은 철저하게 삼위일체론의 토대위에서 구성되고 서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von Aquin) 이래로 서방 안에서 하나의 주도적인 신론의 서술방식은 한 분 하나님의 본질(본질론)과 속성(속성론)을 우선적으로 취급한 후에 삼위일체론을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삼위일체교리가 한 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다루는 신론의 전체 구도 속에서 그것의 부록으로 축소될 뿐만 아니라, 전체 신학을 구성하는 개별 교리들과의 관계성을 상실하고 그것들로부터 고립되는 사태를 피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이미 전술한 것처럼 술라이에르마허처럼 삼위일체교리를 교의학의 말미에서 취급하더라도 삼위일체교리는 다른 개별 교리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면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이러한 술라이에르마허적 구성은 삼위일체론을 신론의 부록으로 취급하는 토마스의 방식보다 더욱더 심각한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교리를 교의학의 말미에 위치시킴으로써, 이 교리가 전체 교의학의 부록이라는 인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론적 교의학의 구성에 있어서 토마스나 술라이에르마허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학적 구조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 필자는 삼위일체적 교의학의 구성을 위한 예스트의 조직학적 구조(체계)를 진지하게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론(성부), 기독교론(성자), 성령론**을 차례대로 취급한 후 그것들의 토대 위에서 **삼위일체론**을 다룬 후에, 그 **삼위일체론**의 토대 위에서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차례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론, 기독교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예스트가 제시한 이러한 교의학의 구성방식은 1) 첫째, 한 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우선적으로 취급한 후에 삼위일체교리를 취급함으로써 이 교리를 신론의 부록으로 전락하게 하는 토마스적 결함과 2) 둘째, 삼위일체교리를 교의학 말미에 다룸으로써 이 교리를 전체 교의학의 부록으로 취급하는 술라이에르마허적 결함뿐만 아니라, 3) 셋째, 삼위일체교리를 교의학의 서두에 취급함으로써 이 교리를 기독교론과 성령론의 전제적 선험으로 축소시키는 바르트적 결함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교의학 구성의 보다 진일보한 체계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의 체

계가 삼위일체론에 토대한 교의학 구성의 유일한 체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려해볼 만한 체계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더 나은 체계가 구상된다면 수용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견지하면서 말이지요.

<신약주석>



골로새서 해석(1)

최흥식 교수(Ph.D., 신약학)
(헬불신학대학원대학교, 재건 측)

1. 골로새서 1:1-8

본문개관

개요: 본문은 골로새서의 서론으로서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단락인 1-2절은 골로새서의 신자는 사도바울이며 수신자는 골로새 교인들을 밝히며 바울의 인사말을 담고 있다. 둘째 단락인 3-8절은 골로새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올린 사도 바울의 감사기도 내용을 말하고 있다.

인사말(1-2절): 바울은 당시의 서신양식에 따라 서론에서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을 쓰고 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 임명하고 파송한 사도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한다.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공동발신자로 나오지만 골로새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은 바울이다. 수신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형성되었다(행 19장).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바울은 헬라식과 히브리식을 병행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한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감사기도(3-8절): 바울은 인사말 다음에 감사기도문을 적는 것이 그의 서신들의(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공통된 특징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쌓여진 소망에 관한 것이다. 그 말씀은 그들에게 이르렀으며 온 천하에서도 능력을 행사하여 많은 사람을 신자로 만들고 있다. 그들은 에바브로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 에바브로는 주님과 골로새 교인들을 섬기는 종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성도들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소유해야 한다. 신자는 꾸준한

성경 공부를 통해 신자의 삼중요소 믿음, 소망, 사랑을 더욱 성숙시켜야 한다.

절 별 주해 1절: 그레코 로마 시대의 통상적 서신 양식에 따라 바울은 이 서신의 발신자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마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쓰지 않았고 필사자의 손을 빌어 작성하였을 것이다(4:18 참조).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권위를 강조한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통해 사도가 됨을 강조한다. 갈라디아서 1장 15-1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서술한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예레미야 1장5절을 반영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성을 주장한다. 하나님은 바울을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신 것처럼 (사 49:1, 6)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셨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 임명하고 파송한 사도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를 강조한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도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직접 개척하여 세우지 않은 점과(2:1 참조)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는 바울의 대적자들과 혹시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 때문일 것이다. 이 서신의 공동발신자 디모데는(롬 16:21; 고후 1:1; 빌 1:1; 살전 1:1; 살후 1:1; 몬 1:1 참조)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었다.



터키 서남부 계시록의 일곱 교회와 골로새의 위치

2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성도들(hagiois)로 부른다(롬 1:7; 고전 1:2; 고후 1:1; 빌 1:1 참조). 신자들은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 나실인들과 같이 세속으로부터 분리

되어 하나님께만 구별되어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성도됨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신자들에게 주어진 객관적 신분이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로 묘사한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갈 2:20 참조). 그리스도가 성도들이 존재하는 영역이다(롬 8:1; 고후 5:17 참조). 형제들이라는 말은 바울과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공통적 신앙을 통해 결속된 영적 가족임을 의미한다. 신실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뜻한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신자의 신실함의 모범적 인물로 소개한다(롬 4장). 바울은 헬라식 인사인 charein을 charis로 변용하고 히브리식 인사인 샬롬(헬라어는 에이레네)을 병행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말을 전한다.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하며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완전한 화목과 조화를 통해 주어지는 총체적 인간의 삶의 평화를 의미한다.

3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1장 9절 참조). 지속적 중보기도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목회적 돌봄을 표현하는 것이다. 기도는 통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뢰어 진다(골 3:17). 예수님은 주시며 그리스도 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이 마치 교향곡의 전주곡처럼 드러나 있다. 바울은 1장 13-2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신적 신분과 사역을 암시하며 예수님의 위엄과 주권을 그분의 정체성을 밝힘으로써 드러낸다.

4-5절: 바울이 감사기도를 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 인식이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과 일체감을 통해 신자들이 가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을 뜻한다. 이 신실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신뢰 그리고 순종을 다 공유하는 신자의 태도를 의미한다(히 11장 참조). 사랑은 성도를 위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관심과 호의, 그리고 돌봄과 나눔을 의미한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모범에 근거하고 있다. 소망은 하늘에 쌓여진 축복이 신자들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기대를 뜻한다. 여기에서 소망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골로새 교인들이 연을 영생과 종말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에 대한 소망일 것이다(3:4 참조). “하늘”은 원어에는 “하늘들”로 묘사되었는데 이것은 여러 하늘이 있다는 유대인들의 사상에 근거한 것이다(신 10:14; 느 9:6; 고후 12:2 참조). 구원의 축복에 대한 소망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가질 수 있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복된 소식을 의미한다.

6절: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은 활기차게 전진하며 신자의 인구를 증식시키며 신앙의 성숙을 초래시킨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하고 흥왕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행 6:7; 12:24).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졌다(고전1:18 참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히 4:12 참조). 말씀은 또한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전파되어 질 세계적인 것이다. 신자는 영향력 있는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말씀 사역의 열매를 추수하여야 할 것이다.

7-8절: 에바브로는 골로새 출신이며(4:12)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사역자이다. 그는 바울의 전도를 받아 개종하였으며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친 말씀사역자이다. 바울은 에바브로를 하나님과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함께 종이 된 자”로 묘사한다. 바울은 자신과(롬 1:1; 빌 1:1) 동역자들을(고전 7:22; 골 4:12) 그리스도의 종들로 여긴다. 말씀사역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근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종의 모범이다(막 10:45; 롬 5:19; 빌 2:5-8).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은 예수님은 주님과 왕이시다는 고백에 기초한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역자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바울은 에바브로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군으로 부르는데 그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순종과 동역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신의를 보여준 훌륭한 사역자였다. 말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은 충성이다. 바울은 에바브로의 보고를 통해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겨나고 유지되는 사랑을 의미한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다(갈 5:22). 골로새 교인들의 이웃 사랑은 에바브로를 통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알려질 만큼 유명했다(1:4).

<이사야서 강해(3)>



“배역한 백성”(5장)

임용섭 교수(구약학, Ph.D.)

개요(이사야 1~5장)

- A 타락한 시온의 정화(1:1~31)
- B 높아질 시온(2:1~5)
- C 세상 영광과 우상의 붕괴(2:6~22)
- C' 불의한 사회 체제의 붕괴(3:1~4:1)
- B' 회복될 시온(4:2~6)
- A' 배역한 백성의 심판(5:1~24)

개요

이사야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배역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다는 점에서 시온의 타락과 정화를 다루는 1장과 짝을 이루며, 이 두 장이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현재를 다루는 2~4장을 둘러싸고 있다. 6장은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다루므로 새로운 단원이 시작된다.

개요(이사야 5장)

1. 포도원 노래(5:1~7)
 - 경작(1~2절)
 - 평가(3~4절)
 - 처단(5~7절)
2. 저주시(5:8~25)
 - 경제적 불의 질책(8~17절)
 - 사법적 불의(18~25절)
3. 이방을 통한 심판(5:26~30)

5장은 세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위 포도원 노래를 담고 있는 5:1~7은 포도원을 경작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 다음

에 5:8~25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문구가 반복되며,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직접적으로 질타한다. 마지막 5:26~30은 결론적인 심판의 선고로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 백성을 처단하실 것을 선언한다. 이 단원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포도원 노래(5:1~7)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청중들에게 익숙한 포도원 농사를 비유로 들고 있다. 포도원을 위해 농부는 최선을 다해 수고했지만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1~2절). 농부의 수고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대로 번성한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셨다.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주신 율법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농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언약에 신실한 삶 즉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4절에서 선지자는 그 포도원에 대해 백성에게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6절은 포도원에 대한 농부의 처단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백성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 땅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황폐하게 되도록 버려두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7절은 결론적인 요약진술이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 땅에서 정의(미슈파트)와 공의(체다카)를 이루기 원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기대하셨던 바와 같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이루기 원하셨다(창 18:18~19; 히브리어 원어는 같은 단어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 땅에는 정의와 공의 대신에 오직 포악(미슈파하)과 부르짖음(체아카)이 가득했다. 결국 이 나라는 아브라함 당시에 부르짖음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하였다(창 18:20).

저주 시(詩)(5:8~25)

비유에 이어 저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8~17절은 그 백성이 탐욕과 향락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였음을 질책하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8절)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신 기업을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독점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늘날 부자들이 부동산을 필요 이상으로 점유하면서 전월세 대란이 나고, 혹은 경쟁력이 큰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현실과 비슷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옥과 전토를 황폐하게 하심으로 부를 독점하고 민생을 피폐하게 한 기득권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셨다. 탐욕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취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11~12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궁핍하게 하셔서 낮추시고, 오직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게 하신다(13~16절).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서게 될 때 비로소 약한 자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17절).

경제적인 불의를 논한 8~17절에 이어서, 18~25절은 사법적인 불의에 대해 질책한다. 인간의 탐욕과 그에 따른 죄는 사법적인 제재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법적인 질서마저 왜곡되었다면 그 사회는 더 급속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말하듯이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사법적인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은 무시되고 약자들은 공평한 심판을 받지 못해 더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시되 불이 그루터기와 뿌리까지 태우듯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신다.

이방을 통한 심판(5:26~30)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불의한 백성을 심판

하지기 위해 하나님은 먼 나라들을 소집하신다(26a). 이것은 마치 사사시대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심으로 그 백성의 가시와 울무가 되게 하신 것과 같다(삿 2:3). 심판의 도구로서 나라들의 소집에 대한 이사야 예언은 앗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위협을 받으며,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침략군들은 파죽지세로 몰려와 그 백성을 치고 위협할 것이다(26b~30a).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의 제국적인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곧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평신도를 위한 요한복음 산책(5)>



더 큰 것을 기대해도 되는 이유

이재성 교수(신약학, Ph.D.)

(요한복음1:43-51)

앞 선 단락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과 바돌로매로 더 잘 알려진 나다나엘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나다나엘은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예수를 소개한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구약 성경 전체-율법과 여러 선지자-를 살핀 결과를 통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했고, 곧바로 나다나엘을 그 분께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참 의의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어이없는 반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성경연구의 결과임을 알게 된다. 구약은 한결같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남을 예언하고 있고, 나사렛에 관한 것은 언급된 것이 없기에 빌립이 소개하는 그 분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에 나다나엘은 그럼 그 분은 빌립이 말한 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빌립과 마찬가지로 나다나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해 주는 부분이다.

그리고 후에 예수께서 그를 만나신 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을 깊이 구하며 말씀과 묵상의 삶을 힘썼던 그를 보여주고 계시다. 본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진지한 구도자들이 인생을 사색하기 위해 찾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신앙을 키워가던 나다나엘은 어느 날, 빌립으로부터 나사렛 예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결국은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나다나엘

물론 처음에 나다나엘은 자신이 만난 예수가 메시아라는 빌립의 말을 나다나엘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보라"는 빌립의 강력한 권유에 나다나엘은 선뜻 따라 나섰다.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과 대면하는 순간 나다나엘은 모든 의혹이 사라지게 되었다. 생면부지의 사람과의 첫 대면이었음에도 한눈에 자신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칭찬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자신의 눈 앞에 계신 분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이심을 확신케 된 나다나엘은 기쁨과 감격 속에 신앙고백을 하였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49).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 속에서 아직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께서 어떻게 그 메시아 되심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혼돈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칭찬하셨다. 그리고는 장차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축복하셨다.

이 설명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와 연결된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벤휈이라는 광야에서 노숙을 하다가 꿈을 꿔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창 28:12).

이러한 구약 이야기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전한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에, 그리고 그 일의 증인으로 하늘을 여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아울러 예언하고 계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참 많은 만남을 경험하고 산다. 그리고 어떤 만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정도로 큰 사건이 되기도 한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통해 진행된 전반부와 후반부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바울을 만나게 된다. 이 두 사람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설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사도 바울이 행한 설교를 보면 그의 변론과 신학, 그리고 가르침이 한 장소와 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다메섹이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잔멸하고자 혈기가 가득찬 모습으로 가던 길, 주님은 그의 길을 가로막고 서셨다. 그리고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다. 그리고 그를 잠시 눈 멀게 하시더니, 다시 눈 뜨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 눈 감을 때와 눈 뜰 때의 모습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예수를 능욕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그들의 친구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리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자로 바뀐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했던 과거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끔찍하고, 두려웠겠는가!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총을 전해달라고 일군으로 부르심을 생각할 때 그 안에는 견딜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런 그의 고백이 이해가 간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빌1:6);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8:32).

나다나엘의 부름의 이야기는 놀라운 약속으로 끝난다. 지금 보는 것은 시작이다!

우리의 부르심도 그렇다.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감격해하는 것! 그건 시작일 뿐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복'이되는 꿈을 꾸셨다면, 오늘 우리의 부르심 속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가 담겨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마 1:18-25



김준범 목사(양의문교회 담임,

고려개혁신학연구원,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신학 교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고백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개혁신교회의 ‘일치신조’ 또는 ‘하나 되는 세 고백서’(The Three Forms of Unity) 중 개혁신교회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9문부터 제52문에 이르기까지 매우 긴 분량을 할애하여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救贖)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문답들은 사도신경의 조항들에 대한 일종의 ‘해제(解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이 되는 제29문답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답: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1.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었으며, 주님께서 그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 16:18).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와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그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요일 4:15)고 하였습니다(요일 5:5,12 참조)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고 하셨습니다.

2.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이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救主, Savior)라 부릅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이 뜻하는 바를 바로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두 말의 단축형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건짐과 구원을 받아야 할 곳은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으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 나신 우리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입니다.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0-21).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이름, 곧 예수는 영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를

통해 주신 이름이요, 그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특별히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교훈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예수님의 지상 ‘대 명령’과 같은 중요한 교훈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과 천국에 관하여 약속해 주신 모든 약속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제30문)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이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사귀어 있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3.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 예수

모든 사람에게 이 보배로운 이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소망이 없는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참으로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영혼 속에는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사는 자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믿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고전 1:30-31 참조).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지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이신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SLSW)(4)

배춘섭교수(선교학, Ph.D.)

스캇 모로우(Scott Moreau)는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SLSW)을 지역귀신과 대항하여 기도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영적인 지도를 만드는 것으로 묘사한다. 또한 지역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구별하고 그 귀신들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복음을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으로 설명한다.¹⁾ 이런 과정의 한 단면은 ‘영적 도해도’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지역을 연구하고 지역귀신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강력한 진을 기도로 격파하기 위해서이다.²⁾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가 있다. 지역귀신들이 묵이게 되면, 불신자들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SLSW는 개혁주의 신학 관점에서 적지 않은 위험성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SLSW에 관한 긍정적인 기여와 부정적 측면을 살피고자 한다.

1. 영적 전쟁의 강점(強點)

오늘날 SLSW는 여전히 많은 신학적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적지 않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SLSW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와그너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SLSW는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을까? 과연 와그너의 SLSW는 어떤 점에서 매력이 있기에 그렇게 SLSW의 지지자들이 그의 주장을 추종하는 것일까?

첫째, SLSW의 지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로 하여금 마태복음 28:18-20절의 그리스도의 지상대명령(the Great Commission)에 순종하기를 기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SLSW의 목적으로 전도를 매우 강조한다. 토마스 화이트(Thomas B. White)는 “내 생각에 전도를 분명히 강조하지 않은 채 영적인 지도를 아무리 정확하게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한다.³⁾ 빅터 로렌조(Victor Lorenzo)는 “만일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옥문을 대항하는 특공대라는 명분으로 더럽혀지거나 상실된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

린 것이다”고 말한다.⁴⁾

둘째, 그들은 복음전파와 선교사역에 있어서 지역과 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로서 마귀의 강력한 진(Strongholds)을 파악하기 위해 SLSW의 선교사들은 주로 세 가지 요소에 관심을 집중한다. “도시의 문제”, “도시문제의 이유와 근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등이다. 또한 그들은 더 나아가 도시에 대한 여섯 가지의 흥미로운 관심들에 더 귀를 기울인다. 그것은 기독교의 정세, 만연한 사회적 속박, 세계관과 성실성, 영적 장벽, 최근 환경의 변화 그리고 영적 돌파구를 위한 잠재력 등이다.⁵⁾ 이런 연구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때 선교전략을 위해 적절하고 유의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셋째, 그들은 영적 전쟁과 마귀들의 실존을 가정하고 표적과 이적을 위한 은사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보다 귀신의 존재를 더 증명하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 성경에서 귀신들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헌들은 매우 적다.⁶⁾ 반면 SLSW의 지지자들은 가시적 세계 뒤에 숨어있는 초월적 존재인 불가시적 배후세력에 대해 아주 진중하게 제시하면서 능력 있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도록 가르쳤다. 때문에 귀신의 실존을 믿으려 하지 않는 서구인들은 영적 존재에 관해 더 지식을 충족하려는 욕구를 채워준 SLSW에 관해 상당히 호의적이 되었다.

넷째, 그들은 중보기도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믿기 때문이다. 대부분 SLSW의 옹호자들은 중보기도가 방법론적 기도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딕 이스트맨(Dick Eastman)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소명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길이다”라고 했다.⁷⁾ 그렇다면 SLSW는 살 길을 찾아 미리 알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기를 원하는 중보자들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SLSW를 변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완수하려 할 때 교회 안에서 일치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분열은 하나님의 군대를 약화시킨다는 이해 때문에, 그들은 경쟁보다는 상호협력을 매우 추구한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의 적을 대적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힘을 합하여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말한다.⁸⁾

1) A. Scott Moreau, “Gaining Perspective on Territorial Spirits,” in *Deliver Us from Evil: An Uneasy Frontier in Christian Mission*, ed. A. Scott Moreau & others (Grand Rapids: World Vision Intl, 2002), 263.

2) Bob Beckett, *Commitment to Conquer* (Ventura, CA: Regal, 1997), 32-35.

3) T. B. White, *The Believer's Guide to Spiritual Warfare* (Ann Arbor, MI: Servant Publications, 1990), 133.

4) Victor Lorenzo, “Evangelizing a City Dedicated to Darkness,” in *Breaking Strongholds in your city: How to use spiritual mapping to make your prayers more strategic, effective and targeted*, ed. C.P. Wagner (Ventura, CA: Regal, 1993), 172.

5) George Otis, Jr., *Spiritual Mapping Field Guide: North American Edition* (Lynnwood, WA: Sentinel Group, 1993), 25-27.

6) Neil T. Anderson, *The Bondage Breaker* (Eugene, OR: Harvest House, 1990), 102.

7) Dick Eastman, *Love on Its Knees: Make a Difference by Praying for Others* (Tarrytown, NY: Chosen Books, 1989), 30-31.

2016년도 신·편입생 모집(일반전형)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과 “철저한
성경언어교육에 기초한 주석-설교 훈련”을
바탕으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바른
신학교육의 산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모집(신입, 편입) - “사회복지학 신설”

과 정		인 원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박사(Ph. D.)과정	-신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0명	1 원서교부 및 접수 1월 4일(월)~2월 일일(화) 2 전형일시 2월 4일(목) 오전 10시 3. 전형방법 ① Th. M./ M. Div./ M. A. - 서류전형(1차) - 면접(2차) ② Ph. D. - 서류전형(1차) - 영어 및 전공시험(2차) - 면접(3차)
신학석사(Th.M.) 과정	구약, 신약, 역사, 조직, 실천, 선교	00명	
목회학석사과정 (M. Div.) 목회학연구과정 (M. Div. eq.)		00명	
석사(M.A.)과정	-성경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00명	
평생교육원	-기독교 상담연구반 -조직신학 교사반 -목회자 주석-설교반	00명	

2. 특전: 합격자 전원 입학금 면제(특별전형에 한함)

3. 특징:

- ① 성경언어 강화를 통한 성경 주석 특성화
- ② 직장인을 위한 수업 운영
- ③ 지방학생 기숙사 제공
- ④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7분 거리
- ⑤ 다양한 장학 제도(성적, 복지, 단독목회, 원우가족, 근로, 특별 등)
- ⑥ 타 교단 학생으로 본 교단에서 목회를 원할 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회할 수 있도록 함

4.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sb.ac.kr

8) A. Scott Moreau, “Gaining Perspective on Territorial Spirits,” 266.